

'서남대 의대 폐과' 남원시민 허탈

“지역민 숙원 이룬 의대, 이사장 교비횡령 등 비리로 20년만에 폐교” 울분 토로

“청천벽력같은 서남대 의대 폐과 소식에 남원시민의 자존심이 무너지는 것만 같아 통탄스럽네요.” 서남대학교 구 재단측의 의과대학 폐과 결정에 남원시민은 물론 전북도민들이 통탄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특히 지역민들의 숙원사업으로 지난 1995년 의대 신설부터 서남대 설립자 이흥하 이사장을 비롯한 학교 운영진의 비리 의혹과 부실교육 논란으로 하루도 조용할 날 없었던 서남대 의대가 20년 만에 문을 닫는다는 소식에 남원시민들은 울분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남원시민 K(45)씨는 “서남대학교 의대는 이흥하 이사장 일가의 것도, 교육부의 것도 아닌, 지역민들의 숙원과

자존심이 담긴 의대”라며 “학교재단의 비리에 따른 교육부실을 관리 감독해야 할 교육부가 대학구조개혁에만 매몰돼 지역에 꼭 필요한 의대가 폐교되는 일이 벌어졌다”고 학교재단과 교육부를 싸잡아 비판했다.

전북지역 의료계를 위한 자원확보를 1995년 설립된 서남대 의대는 부실교육 논란에도 수도권에 밀집된 의료자원을 분산, 지역 의료계에 큰 힘을 보태왔다.

서남대 의대를 졸업한 한 개원의는 “설립 초기부터 부실교육 논란이 끊이지 않았지만 서남대 의대는 지역민들에게는 자부심의 원천이었고, 의대생들에게는 지역 의료계의 핵심 자원으로 성장하는 발판이었다”며 “학교

설립자의 개인 비리가 학교 부실 운영으로 이어지고, 끝내는 학교 경영을 파산까지 몰아 학교 문을 닫을 지경까지 왔다는 현실이 믿어지지 않는다”고 허탈감을 토로했다.

330억원이 넘는 교비를 횡령해 실행이 확정된 서남대 이흥하 이사장의 비리로 서남대의 근간을 이루는 의대 폐과 결정에 이르는 과정에서 보인 대학 측의 부실한 지구노력과 교육당국의 무책임한 방임을 성토했는 목소리도 크다.

남원시를 비롯한 임실과 순창 등 전북 동부권 지역민들은 학교 설립자의 교비 횡령 보전을 위해 20년 넘게 지역 의료계의 한 축을 담당하던 서남대 의대 폐과를 지구 계획으로 교육부에

제출한 대학 측에 배신감을 토로하고 있다.

서남대 입학정원은 900명으로 이 가운데 의대 입학정원은 49명이다. 현재 의대에 재학중인 294명은 폐과가 확정되면 인근 의대로 특별 편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남대가 교육부에 제출한 지구 계획은 서남대 의대 폐과로 남원캠퍼스는 일부만 평생교육원으로 활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임실군민 L(53)씨는 “서남대 의대는 학교재단 설립자 개인의 소유물이 아닌, 지역민들의 숙원을 모아 당시 김영삼 정부의 결정을 끌어내 신설한 의대”라며 “부도덕한 대학 이사장 비리와 무능한 학교 운영진에 엄청난 책임을 묻고, 의대는 살리는 방향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진수 기자

전주시, 체납 수도요금 12억원 징수

전주시가 상·하수도 요금 체납징수를 통해 안정적인 수도물 공급과 지방재정 확충에 집중하고 있다.

전주시 맑은물사업본부는 지난 4월 20일부터 5월말까지 상반기 특별징수기간을 운영한 결과 당초 목표액인 8억원보다 4억원을 초과한 12억원의 체납요금을 징수했다고 7일 밝혔다.

이는 고질·상습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를 위해 주소지와 사업장 등 현지 방문을 통해 납부를 독려했던 결과다.

특히 △1일 5명이상 체납자 방문하기 △1일 40세대이상 단수계고하기 등의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 고질·상습체납자에게 ‘수도요금 체납하면 단수된다’는 인식을 심어주는 등 발로

뛰는 현장 징수활동을 전개한 결과로 평가받고 있다.

시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채권확보를 위해 재산압류 등을 실시하고, 소액·단순 체납자에 대해서는 수시 징수독려와 단수계고(처분)을 병행하는 등 체납으로 인한 세입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체계적인 방식으로 관리해 나갈 방침이다.

김상용 맑은물사업본부 수도행정과장은 “고질체납 예방 및 체납액 최소화하기 위해 상습·고액체납자에 대한 징수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일상생활이나 영업활동에 꼭 필요한 수도물이 단수단계까지 가지 않도록 수도요금을 성실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영재 기자

정신질환 범죄자 관리 강화

전북경찰, 범죄 전력자 치료여부 등 철저 파악 나서

전북경찰이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묻지마 범죄’ 예방을 위해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범죄 전력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김재원 전북지방경찰청장은 7일 기자회견을 갖고 “도내 정신질환자가 저지른 범행 사례를 면밀히 파악해 불특정 다수를 겨냥한 ‘묻지마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는데 총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전북지역에서도 지난해 정신질환자에 의한 범죄는 8건이 발생했으며 각각 살인 4건, 강도 4건이다”며 “조현병, 알콜중독, 우울증 등 정신질환 병력이 있는 사람들 가운데 범죄를 저지른 전력자 있는 범행 우려자를 파악하고, 이들의 추가 범죄 예방을 위한 관리에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이들 범행 우려자에 대한 가족의 보호 여부, 지속적인 병원 치료여

부 등 이들이 현재 상태를 철저히 파악하고 관리할 예정이다”며 “범죄가 발생한 뒤 사후 처벌하는 방식에서 전환해 사전 예방에 모든 경찰력을 동원해 묻지마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청장은 또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당선인에 대한 수사진행 상황에 대해서는 “국회의원 당선인 6명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았는데 5명은 혐의 없음으로 종결됐고, 1명이 수사 중이다”며 “수사가 진행 중인 당선인 1명도 남았는데 현재로서는 당락을 결정할 위중한 사안은 아닌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현재까지 수사 대상에 오른 221명의 선거사범 중 1명을 구속하고, 44명을 불구속 송치했으며, 66명에 대해서 수사를 벌이고 있다. 또, 110명에 대해서는 ‘혐의없음’으로 내사 종결했다. /안진수 기자

상습 음주운전자 차량 압수

경찰이 전북지역에서 최초로 상습 음주운전자의 차량을 압수했다.

익산경찰서는 7일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이모(40)씨를 구속하고, 이씨 소유의 그랜저 차량을 압수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일 익산시 어암동 한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고 300m 가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경찰의 음주단속에 적발된 이씨는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0.153%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안진수 기자



7일 전주시 어린이집 통합연합회 김대기회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전주시청을 방문해 김승수 시장에게 저소득가정 청소년기 여성 위생용품(생리대) 지원을 위해 써달라며 200만원의 성금을 전달했다.

주차 차량 흡진 30대 입건

차기가 낡힌 채로 주차된 차를 훌쳐타고 닳아간 운전해 전주시와 완주를 돌아다니던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주역전경찰서는 7일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을 흡진 혐의(절도)로 이모(37)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1일 오전 10시에 전주시 우아동 한 주차장에 세워진 A(54)씨의 산타페(시가 900만원 상당) 차량을 흡진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씨는 A씨가 차에 열쇠를 꽂아 두고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차량을 흡진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흡진 A씨의 차량을 타고 지난 6일까지 전주시와 완주지역 상가 등을 돌아다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경찰에서 “평소 타고 싶었던 차에 열쇠가 꽂혀 있어서 훔쳤다”고 말했다. /안진수 기자

전주 저소득층 여학생 위생용품 후원

어린이집 통합연합회 시에 성금 200만원 기탁

시가 생리대를 구입할 돈이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 여학생들을 위한 긴급 지원에 나선 가운데 얼마의 마음을 담은 생리대 후원이 이어지고 있다.

전주시 어린이집 통합연합회(회장 김대기)는 7일 전주시청을 방문해 저소득가정 청소년기 여성 위생용품(생리대) 지원을 위해 써달라며 200만원의 성금을 기탁했다.

이날 김대기 회장은 “생리대를 살 돈이 없어 어려움을 겪는 여학생들의

사연을 접하고 아이들이 너무 안쓰럽고 안타까웠다”며 “아이들이 구김 없이 지낼 수 있도록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에 후원하게 됐다”고 말했다.

시는 지역내 저소득층 여학생 현황을 파악한 결과 만 10세부터 18세까지 전주시 여학생 총 6700여명 가운데 한 부모가정과 장애인가정, 조손가정 등 400여명의 지원 대상 여학생을 파악했다.

/김영재 기자

미용가위 훔쳐 달아난 40대 검거

술에 취해 미용실에 들어가 돈을 요구하다 손님과 주인이 응하지 않자 미용 가위를 들고 달아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주역전경찰서는 7일 미용실에 들어가 미용선반 위에 놓인 가위를 들고 달아난 혐의(절도)로 김모(4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6일 오전 12시20분께 전주시 금암동 북부시장 한 미용실에 들어가 미용선반 위에 놓인 시가 60만원 상당의 가위 2점(120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안진수 기자

절도형 보이스포싱 사기 20대 조선족 징역형

노인을 대상으로 절도형 보이스포싱(전화금융사기) 행각을 벌인 조선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3단독(정인재 부장판사)는 중국 총책의 지시를 받고 보이스포싱 피해자가 은행에서 인출해 집안에 보관하고 있던 현금을 훔친 혐의(절도 등)로 기소된 조선족 지모(22)씨에게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지씨로부터 송금을 의뢰받아 중국에 있는 보이스포싱 일당

에게 6800여만원을 보내준 혐의(외국환거래법위반)로 기소된 김모(45·여)씨에 대해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지씨는 지난 4월5일 오전 8시44분께 전주시 덕진구 A(70)씨의 집에 들어가 A씨가 은행에서 찾아놓은 현금 2700여만원을 훔치는 등 지난 3월30일부터 4월6일까지 모두 5차례에 걸쳐 7200여만원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박용주 기자



사람의 도시 품격의 전주